

십일면관음입상

관음보살은 자비와 연민을 상징하는 부처입니다. 관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이 저마다 탄원하는 내용에 맞는 다른 형태로 소원을 들어줍니다. 간제온지 사원의 보물전에는 성관음, 십일면관음, 마두관음 등 다양한 관음의 모습을 표현한 관음상이 있습니다.

이곳에 안치된 관음상은 십일면관음입니다. 십일면관음의 주요 특징으로는 부처님의 머리 위에 있는 10 개의 작은 머리를 들 수 있는데, 이 머리들이 여러 방향으로 향해 있는 이유는 고난에 처한 중생들을 헤아리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불상은 13 세기에 제작되었습니다. 높이는 103cm 로 간제온지 사원에서 가장 작은 목조상입니다.